



기독일보



2021년 7월 14일 수요일 (음력 6월 5일)

www.christiandaily.co.kr

구독신청 02-6085-8166 제 1840호

수도권 대면예배 금지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예자연 “실상은 ‘교회 폐쇄’와 같은 지침”

수도권 지역 일부 교회들이 13일 오후 서울행정법원에 대면예배 금지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예배회복을 위한 자유시민연대’(대표 김진홍 목사·김승규 장로, 이하 예자연) 사무총장 김영길 목사는 이날 서울행정



예자연 사무총장 김영길 목사가 대면예배 금지에 대한 수도권 지역 일부 교회들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취지를 밝히는 모습.

법원 앞에서 신청 취지문을 낭독했다. 정부는 12일부터 수도권에 새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의 최고 단계인 4단계를 적용하고 있다. 2주간 시행되는 이 단계에서 종교활동은 비대면만 허용된다.

그러나 예자연은 “비대면 예배 허용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면서도 그렇지 않는 것처럼 기만하는 안아적 선전일 뿐”이라며 “오히려 교회 시설에서 예배를 금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상은 ‘교회 폐쇄’와 같은 지침”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부는 지난 2월 1일 공식적으로 ‘예배를 통한 감염은 거의 없었다’

라고 하면서도 이를 무시하고 예배의 형식을 강제하고 통제하는 것에 참으로 통탄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에 대해 예자연과 함께하는 700여 개 교회 중 수도권에 있는 일부 교회가 참여하여 대면예배 금지에 대한 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서울행정법원에 접수한다”고 밝혔다.

또 “이번 정부의 발표는 교회를 사실상 유형업소와 같은 ‘고위험 종교시설로 분류하고 별도의 기준으로 통제하고 있

기에 분노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며 “1 단계에서부터 교회는 정교예배에 한해서 50%의 인원으로 통제하고 1인을 초과하는 성가대 및 찬양팀을 운영할 수 없게 할 뿐 아니라, 통성기도도 금지하고 있으며, 공용의 성경을 비치할 수 없게 했다”고 했다.

이어 예자연은 “2~3단계에서는 30%와 20%의 인원으로 한정하면서 소모임과 식사 등을 일체 금지하고 있다”며 “4단계에서는 더욱 심각하다. 전시회 박람회 등은 시설면적 6m²당 1명으로 운용하며, 콘서트·음악회 등은 5천명까지 허용하고 있으면서 사실상 교회는 폐쇄하고 있다”고 했다.

예자연은 “예배의 자유는 인류의 역사에서 가장 근본적이고, 생명과 같은 권리이며 신앙인에게는 희흡과 같다”며 “한국교회는 어느 시설보다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형평성에 맞게 예배를 드릴 것이다. 만약 고발을 당하면 예자연은 적극 대응할 것이다. 동시에 해당 공직자의 직무를 벗어난 과한 행동에 대하여도 법적 다툼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형구 기자



총리 “종교계 협조를” 김부겸 국무총리가 13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종교계 지도자들과 간담회에 참석해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수 급증에 대응해 종교계의 협조 및 동참을 구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간담회에서 김 총리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책임감을 갖고 위기극복에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관련기사 3면 ©뉴스

“공연장은 5천명까지 되는데 현장예배는 금지?”

한국교회사호결사대, 자유인권실천국 민행동 등 단체들이 13일 오전 서울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정부의 방역 수칙을 규탄하는

행정의 표본”이라며 “어떻게 불특정 다수가 전국에서 모이는 실내 공연장엔 5,000명까지 허용하면서 예배를 전면 금지하고, 야외 스포츠경기도 무관중으로 통제할 수 있는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람을 차별하며 감염시킨단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율라 단체들은 “탁상행정으로 영성하기 이를 데 없고 형평성 무시한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방역수칙은 부실하고 엉성하다는 생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갑작스런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 조치에 짙은 의구심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전 국민이 정부를 믿고 코로나 방역수칙 준수에 매진해왔는데, 문재인 정부는 무능함의 극치를 넘어 국민을 배신하고 사지로 몰아 넣는 극악 처방을 비상 대책이라고 내놓았기 때문”이라고 했다.

단체들은 “하리파를 졸라매며 정부 지침에 맡없이 따라준 국민들은 한계상황에 직면해 격상돼 있다. 이는 코로나 방역수칙은 비과학적이며 앞뒤가 혼란해 철저히 실패한 것”이라며 “백신 물

량 확보에도 철저히 실패했다. 그럼에도 문 대통령 등은 공개적으로 사과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특히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방역수칙은 부실하고 엉성하다는 여론의 질책을 받고 있다. 어떻게 사워실 사용이 마스크 쓰는 헬스장에 금지되

고 마스크 안 쓰는 수영장에 허용되는가”라며 “오후 6시 이후 택시 탑승은 사적 모임으로 간주해 2명으로 제한하는데, 왜 승객이 가득한 만원 버스·전철기차는 아무런 규제가 없는가. 코로나 바

이율라 단체들은 “탁상행정으로 영성하기 이를 데 없고 형평성 무시한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방역 수칙으로 국민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 문 대

통령은 국민을 고통 속으로 몰아넣은 4 단계 조치를 즉각 철회하라”며 “실내 공연장엔 관객 5,000명까지 허용하면서 야외 스포츠 경기를 무관중 통제하고, 한국교회 현장 예배를 전면 차단한다는 게 말이 되는가”라고 했다. 노형구 기자

‘2021 제16회 한인세계선교사대회’ 한국서 처음 개최

선교사회(KWMF)와 한동대학교는 방역에 만전을 기하여 현장 참석자들은 코로나19 PCR 음성확인서(문자·사진)를 제출하고, 매일 자가 체크리스트를 작성하도록 했다. 포항시는 마스크와 소독약 등 방역물품을 전달했다. 현재 포항시는 7월 1일부터 14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1 단계를 시행 중이다.

13일 오후 오프닝 세레모니가 열린 한동대 효암체플 현장에는 300여 명, 유튜

브 생방송으로는 370여 명이 참여했다.

최근봉 KWMF 대표회장은 개회사 및 개회선언에서 “제16회 한인세계선교사대회를 처음으로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서 개최하게 되었다. 또한 선교적 교육과 실천을 지향하는 한동대와 함께 공동주최하게 되었다”며 “이 대회는 선교 융합의 실체이기 때문에 3박 4일 동안 여러분과 함께 경험하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7면에 이어 이지희 기자

단계와 무관하게 공용 성경·찬송가 제공·사용 금지

방역당국, 종교시설 감염 취약시설로 분류

지난 12일부터 2주간 수도권에 새 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되면서 이 기간 종교 활동은 비대면만 가능하다. 방역당국은 종교시설을 노래연습장, 유흥시설, 식당·카페 등과 함께 7대 감염 취약시설로 분류했다.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종교시설 위험 요인으로 아래 13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①설교, 노래(찬송 등) 등을 침방을 발생시킬 수 있는 활동

②이용자들 간은 친밀한 관계로 대화 등 침방을 발생시킬 수 있는 활동을 통해 감염 전파 위험

③식사가 동반되는 경우는 마스크 착용이 불가능

④이용자 간 거리두기가 되지 않는 좌석 배치인 경우는 밀접밀접 접촉 가능

⑤오랜 시간 체류하여 다른 사람과 접촉 기회가 많아지고, 접촉 시간이 길어질 가능성

⑥시설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상대적으로 감염 취약계층인 고연령층의 이용이 많음

⑦종교활동 후 함께 식사모임 등 후속 만남 가능

⑧신도 간 주기적 만나거나 소규모 모임(성가대, 청년부, 성경공부 모임 등)을 갖는 경우 찾은 재노출

⑨지역·권역을 넘나드는 모임이 이루어지는 경우(부흥회, 교육, 사목자 모임, 열방센터 등) 이후 개별 종교시설로 전파되기도 함

⑩시설에 따라 지하에 위치, 창문이 적은 시설 등 환기가 어려운 시설 가능

⑪책자 등 물품 공유하는 경우 매번

소독이 어려움

⑫기도원 등 숙박을 하며 장시간 머물고 밀접 접촉

⑬집단감염 발생 시 이용자 확인이 어려움

종교시설 방역수칙 중 눈에 띄는 건 ‘공용책자 등 공용물품 제공 및 사용 금지다. 가령 교회 같은 경우, 공용 성경이나 찬송가를 교회 측이 제공해서도, 또는 교인들이 이를 사용해서도 안 된다는 것이다. 이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도 무관한 방역수칙이다. 다시 말해 1단계라 할지라도 교회의 공용 성경이나 찬송가는 제공사용할 수 없다.

또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의 최고 수준인 4단계에서 인원 출입이 허용되지 않는 시설은 스포츠경기장과 경륜장·경정장·경마장, 그리고 종교시설이다. 그 외 다른 시설은 수용인원의 일정 비율에서 일부 출입이 허용된다.

김진영 기자

브릴란테 남산 오피스텔 분양광고

▣ 공시지가 1위 종구! ▣ 회소성 높은 주거형!

■ 사설백 (1명)
■ 골프 드라이버 (1명)
■ 30만원 상당
골프존 미켓 이용권 (3명)

대상 당사 계약자
용기인
전계약 종료시까지
추첨일시 추후 공지
추첨장소 당사 홍보관

* 해당 경품은 통장 및 면허증 사용에 따라 허용될 수 있으나, 실제 미아타운점 청과점은 이용하지 않습니다. * 추첨 당첨자는 당첨자로 인정됩니다. * 당첨자는 추첨 당첨자로 인정됩니다.

※ 당첨자는 당첨자로 인정됩니다.

<div